

정원에 삽니다 순천하세요



순천만국제정원 안에는 50만명(165만㎡)에 걸친 정원을 만끽하고 순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숙박형 체험 '가든스테이'가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살아 숨 쉬는 봄 그 자체다. 개막 2주 차에 관람객 100만명을 넘기며 흥행 가도를 달리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10월31일)는 이미 전국 상춘객들이 한 번은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새로 조성한 국가정원식물원과 시크릿가든, 키즈정원 등을 둘러보며 10년 전 박람회와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외에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물 위의 정원, 맨발로 걷는 '어싱길' 등도 발길을 잡는다.

국가정원식물원·시크릿가든·키즈정원·5km 맨발 걷기 '어싱길' 5가지 테마 물위의 정원·오천그린광장·풍덕돌 경관정원 무료 개방 정원만들기 등 체험 다채...용산전망대에서 보는 순천만 노을 '탄성' '한겨울 꽃핀다' 빙하정원·반려견 놀이터...확 바뀐 박람회 흥행몰이

◇국가정원식물원·시크릿가든=정원박람회장의 핵심 공간인 국가정원식물원과 시크릿가든은 한 데 묶여있다. 국가정원식물원에서는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500여 종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실내 정원이지만 15m 높이 폭포가 물줄기를 쏟아내는 절경도 볼 수 있다. 식물원에서 뻗어 나온 길을 걷다 보면 시크릿가든이 나온다. 마천령으로 이어진 길은 관람객들의 인기 촬영 공간으로 떠올랐다. 탐험하는 듯한 나선형 길을 따라 내려가면 '시크릿가든' 이름에 걸맞은 신비로운 정원이 관람객을 맞는다. 미디어아트로 꾸며지는 식물극장과 흑한에서 자라는 식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빙하정원이 대표적이다. 첨단 태양광 채광기술을 접목한 햇빛정원에서도 마더 정원의 모습을 담고 있다.

◇12개국 세계정원·개울길 광장=도심에서 개울을 만나기는 어렵다. 국가정원 한복판에는 순천의 대표 하천 동천이 개울로 흐른다. 사뭇 소리가 경쾌한 개울길 광장에는 사계절 잔디가 뒤덮여있어 맨발로 걷기 좋은 '어싱(Earthing)'길'이 펼쳐져 있다. 개울길을 따라가다 보면 국가정원 곳곳에는 12개국의 세계정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 각국의 정원문화가 오롯이 반영됐다. 자치단체와 기업, 작가들이 조성한 참여정원 12곳에서도 각기 다른 매력과 장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87가지 체험 공간·반려견 놀이터=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인근에는 온 가족이 정원을 눈으로 즐기고 손으로 만들 수 있도록 87가지 체험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체험 공간은 ▲반려동물·가족정원 만들기 체험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자원순환 체험 ▲다국적 의상 체험 ▲축적사건 체험 ▲전통 목공예 체험 ▲나만의 외젠 만들기 체험 ▲마사지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박람회장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오후 6시까지 이용료를 내고 체험할 수 있다.

국가정원 서문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10월까지 휴무일 없이 운영(오전 10시~오후 6시)된다. 온라인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전문직원이 놀이와 배변처리 등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순천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나들이 나온 시민과 관람객을 위해 순천만습지 입구에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물 위의 정원·풍덕돌 경관정원=순천을 찾는 누구나 무료로 박람회를 즐길 수 있는 대표 공간에는 '물 위의 정원'과 '풍덕돌(풍덕돌) 경관정원'이 있다. 수상 정원인 '물 위의 정원'은 국가정원 남문 밖에 있는 오천그린광장 옆 동천변 출렁다리부터 동천교 사이 물 위에 조성됐다.

무로 개방하는 물 위의 정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일상을 침범하는 위기가림이 반영됐다. 정원 녹지를 옥상에서 물 위로 확장해 수상 정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물 위의 정원은 생태정원과 메타정원, 치유정원, 지속가능한 정원, 공동체 정원 등 5가지로 나눠 조성했다. 이집트의 유령 산악 작가 카림 라시드의 작품이 설치된 지속가능한 정원은 국내외 관람객으로부터 관심이 뜨겁다. 해가 진 뒤에는 야간 조명이 정원을 밝히며 화려함을 더한다. 국가정원을 벗어나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풍덕돌 경관정원은 축구장(7140㎡) 36개 크기인 26ha 규모로 펼쳐졌다. 이곳은 형형색색 튜립과 봄꽃들로 채워 화려한 경관을 뽐낸다. 경관정원에 마련된 작은 섬터에서는 부평한 유리창 너머 화려한 경관을 하나의 '액자'처럼 감상할 수 있어 인기 촬영지로 떠오르고 있다.

◇순천만습지-어싱길=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갯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관규 순천시장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다시 찾아오도록 순천만 일대에서 전봇대를 뽑고 주변을 친환경 농업단지로 조성했다. 순천만습지를 보호해온 결실은 2013년,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보게 됐다. 정원박람회를 위해 조성된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습지를 지키는 '에코벨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8000년 역사를 지닌 순천만은 지난 2006년 국내 연안습지 가운데 처음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됐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이름을 올렸다. 흑두루미·노랑부리저어새와 같은 멸종위기종, 염생식물과 250여 종에 달하는 조류가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이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흑두루미의 90%가 월동하는 일본 이즈미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를 피해 순천만으로 역류 입도기도 했다.

순천만습지의 또 다른 예칭은 '노을 맛집'이다. 무진교를 건너 170만평(562만㎡)에 펼쳐진 갈대사이로 탐방로를 걷다 보면 '일몰 필수 출사지'로 알려진 용산전망대에 다다른다.

순천만습지에는 맨발로 걷기 좋은 5km 길인 어싱길이 펼쳐져 있다. 피부에 닿는 지구를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걷기 좋은 '어싱길'을 마련했다. 순천만습지 어싱길은 탐사길(0.4km), 세계유산길(1.2km), 갯벌길(2.9km)로 나뉜다.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걷거나 때로는 사색을 위해 혼자 걸어도 좋다. 어싱길이 시작되는 곳에는 신발 보관함과 세척장이 있다. 견디밭과 마사토길을 오가며 '어싱'을 즐긴 후 잔뜩 발을 씻으며 그동안의 피로를 털어버리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천그린광장에 조성된 '물 위의 정원'은 해가 진 뒤 야간 조명을 밝히며 순천의 밤을 물들인다.



국가정원식물원에서 뻗어 나온 길을 따라 나선형 길이 인상적인 시크릿가든.



풍덕돌 경관정원에 마련된 작은 섬터에서는 꽃대길 장관을 하나의 '액자'처럼 감상할 수 있다.



'시크릿가든' 빙하정원에서는 한겨울에 자라는 식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만국제정원은 웰니스 미래도시 이정표 국가해양정원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천 마침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8개월간 달려온 노관규 순천시장(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장·사진)은 우리나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순천하세요'를 내걸고 있다. 순천에 놀러 오라는 뜻이지만 '순천처럼 하자' '순천을 따라 해보자'는 권유도 담았다.

도시와 생태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생태수도 순천'은 지역 도시의 새로운 반보기가 되고 있다. 노 시장은 최근 광주일보와 가진 창간 71주년 인터뷰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히 '꽃 박람회'가 아니라 정원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표준을 세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10년 전 순천에서 정원박람회를 열었을 때는 국내에서 생소했던 정원문화를 소개해 긍정적인 충격 효과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원문화가 다방면으로 확장해 건강한 삶을 위한 '웰니스'(웰빙+피트니스) 시대 미래도시가 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죠. 순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단발적인 관광이나 여행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휴식을 누리며 '이런 도시에서 살아야 진짜 행복하겠구나'라는 걸 느끼고 가셨으면 합니다."

노 시장과 순천시가 '순천하세요'라는 유행어를 자신 있게 내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1일 개막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보름이 조금 지나 방문객 160만명을 넘겼다. 10년 전 지은 정원박람회 100만 관람객이 개막 26일 만에 달성한 걸 보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노 시장은 정원박람회의 흥행 비결로 '우리 정서와 문화를 녹인 창조성'과 '유럽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갖춰진 완성도'를 들었다.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휴식을 원하는 많은 이들이 정원 박람회 열리자만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2일 만의 100만 관람객 돌파는 순천시민과 순천시 직원들 모두 기뻐해야 할 성과이지만 800만 목표를 위해서는 아직 결승해야 할 시점이 것 같습니다. 개막 첫 달에 서울시와 광주시, 광명시, 춘천시, 세종연구소 등 전국에서 많은 자치단체와 기관이 정원박람회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정원문화를 적용한 도시의 모습에 대한 답을 충분히 얻어갈 겁니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정원문화·관광문화를 위해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많다. 4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모래를 덮고 잔디를 심어 '그린아일랜드'를 만들 때는 지역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린아일랜드에서 시민 누구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싱(Earthing)'길'은 순천시민들에게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줄 큰 자산'이 됐다. 그린아일랜드와 이웃한 오천그린광장은 반려견 출입 여부를 두고 터덕거리고 있다.

노 시장은 정원문화와 반려동물 문화 모두 다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에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반가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원박람회 종사자들은 현장 곳곳에서 방문객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또 100명 남게 참여하는 단체 체험방에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원박람회장은 외국인 32만명을 포함해 800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10년 전 박람회(111ha)보다 73.9% 넓어진 193ha로 조성했다. 355ha에 달하는 경관정원(무료 구역)까지 더하면 도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박람회장이 된다. 도시의 구조를 바꾼 박람회장에 대한 사후 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 시장은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도시 공간 활용을 논의했다. 그가 대통령에 건의한 문제는 경전선 도심 통과여부와 명품화 사업에 동헌을 포함하는 여부였다.

노 시장은 박람회와 하나의 '도시계획'인 특유의 만화임 등 해외의 5개 도시를 돌아보며 박람회장에 대한 사후 활용을 고민했다. "150년 역사의 독립만민정원박람회는 2년마다 도시를 돌아와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와 하나의 도시계획인 거죠. 특히 '밭'의 라이나우에 피크처럼 박람회 부지를 공원으로 전환해 시민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돌려주는 사례도 이상 없었습니다. 뒤셀도르프의 언더패스, 광장문화,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생태교통정책도 순천시에 접목할 게 많아 보입니다."

노 시장은 정원박람회를 도시발전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박람회 이후 순천만과 국가정원, 도심에 있는 '정원가도 프로젝트'로 긴 녹지 축을 만들어 정원 도시의 모양을 더욱 갖추게 예정이다. 순천시는 자세한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을 방침이다.

'생태수도 순천'은 순천만과 여자만을 토대로 한 해양정원 조성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지난해 전남도가 사업비 2000억원 규모 해양정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했고, 순천만 일대와 보성갯벌(여미만)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오는 6월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내년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면 순천은 내륙의 국가정원과 해양의 국가정원을 동시에 가진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됩니다. 국가해양정원의 모태가 될 순천만국가정원은 자연자원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그린카본-블루카본 산업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